제6장

충남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 1. 대외개방 및 산업ㆍ취업구조의 변화
- 2. 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
- 3. 지역 개발환경 변화
- 4. 산업간 · 산업 내 수직 · 수평적 협력 강화
- 5. IT·환경·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발달
- 6.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1. 대외 개방 및 산업ㆍ취업구조의 변화

가. 대외 개방의 변화

-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지속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나라 및 충남의 경제도 저성정과 불안 정이 지속될 것임
- 국제 무역자유화에 따른 지역경영전략 변화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으로 인해 과거 선진국 중심의 경제구조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 산되고, 제조업 중심의 지구촌 경제가 교육,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등 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확장될 것임
 -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EU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관련 산업 등 기술집약적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충남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영전략의 개방화를 추구하고, 경쟁력 상실되는 1차 산업 부문에 대한 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됨
-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환황해권 시대 전개
 - 중국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황해권은 아시아경제 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임
 - 충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접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 리학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가성장의 선도 지역이자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물류기지로서 중요성이 강화될 것임
- 환경문제의 국제적 관심 증폭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자연재해, 황사현상,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증폭될 것임
 -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과의 친화를 도모하

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전망

■ 에너지·자원 위기의 도래

• BRICs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이 중요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삶의 질 관심 고조

-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생활문화로 정착되고 여가와 문화·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임
-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인간중심적 친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쾌적한 생활, 첨단화된 정주환경 등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고용 없는 저성장'지속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1980년대 7.5%, 1990년대 6.2% 로 5%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저성장 추세는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됨
- 이와 같은 5% 내외의 성장률은 경제적 성숙에 따른 안정적 성장추세로 보일 수 있으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음

나. 산업·취업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

- 충남은 2000년 이후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2차 산업 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중임
- 생산액 기준 1차 산업은 2009년에는 6.9%, 2020년에는 3.8%로 감소하고, 3차 산업 역시 2009년 40.0%에서 2020년에는 30.7%로 줄어드는 반면, 2차 산업은 2009년 53.1%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6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취업구조

• 충남의 취업구조는 1차 산업 취업자가 16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8%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6.4%보다 크게 높고, 2차 산업은 18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0%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20.2%보다 낮으며, 3차 산업 취업자비율은 64.2%로 전국평균 73.4%보다 크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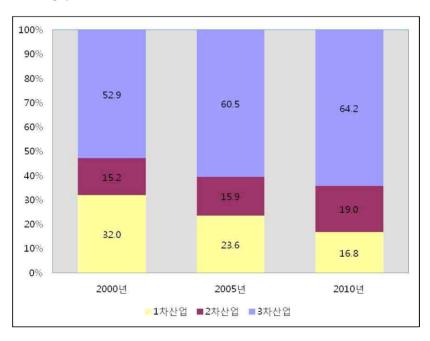
<표 Ⅵ-1> 전국과 충남의 취업구조 비교(취업자수 기준)

(단위: 천명)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계
	884	2,811	10,220	13,915
전국	(6.4%)	(20.2%)	(73.4%)	(100.0%)
충남	164	185	625	974
	(16.8%)	(19.0%)	(64.2%)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충남통계연보. 2010

- 충남의 취업구조는 1차 산업 비중이 2000년 32.0%에서 2010년 16.8%로 크게 낮아졌으나,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비중은 증가 추세임
- 특히, 2차 산업 비중은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효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VI-2> 충남의 취업구조 변화추이

2. 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 변화

■ 인구변화 추이

- 충남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54%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연평균 0.94% 증가하였음
-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연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표 Ⅵ-2>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2000~2010)

(단위: 천인, %)

л н	90001 J	200514	201013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00년	2005년	2005년 2010년		'05-'10	'00-'10	
충남 계	1,930(100.0)	1,982(100.0)	2,076(100.0)	0.52	0.94	0.73	
천안시	425(22.0)	519(26.2)	558(26.9)	4.08	1.46	2.76	
공주시	136(7.0)	131(6.6)	125(6.0)	-0.75	-0.93	-0.84	
보령시	119(6.2)	109(5.5)	107(5.2)	-1.74	-0.37	-1.06	
<u></u> 아산시	186(9.6)	208(10.5)	265(12.8)	2.26	4.96	3.60	
서산시	150(7.8)	151(7.6)	160(7.7)	0.13	1.16	0.65	
논산시	143(7.4)	135(6.8)	128(6.2)	-1.14	-1.06	-1.10	
계룡시	28(1.5)	34(1.7)	43(2.1)	3.96	4.81	4.38	
당진시	123(6.4)	122(6.2)	145(7.0)	-0.16	3.51	1.66	
금산군	65(3.4)	59(3.0)	57(2.7)	-1.92	-0.69	-1.30	
연기군	81(4.2)	85(4.3)	82(3.9)	0.97	-0.72	0.12	
부여군	93(4.8)	82(4.1)	75(3.6)	-2.49	-1.77	-2.13	
서천군	75(3.9)	65(3.3)	60(2.9)	-2.82	-1.59	-2.21	
청양군	41(2.1)	35(1.8)	33(1.6)	-3.11	-1.17	-2.15	
홍성군	95(4.9)	91(4.6)	88(4.2)	-0.86	-0.67	-0.76	
예산군	101(5.2)	91(4.6)	87(4.2)	-2.06	-0.89	-1.48	
태안군	69(3.6)	64(3.2)	63(3.0)	-1.49	-0.31	-0.91	

주: ()의 수치는 충남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나.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 심화

-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충남은 2010년에 이미 고령사회1)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임
-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년인구(0~14세)의 비율은 2005년 18.7%에서 2010년 16.3%, 2015년 13.8%, 2020년 12.3%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수요의 증대, 복지 정 책 및 제도의 질 개선 요구 증대 등이 예상됨
-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3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도 발생하고 취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등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임
- 고령화로 인해 공공재원 조달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공공재원 조달 문제 및 국민부담 증가가 예상됨

■ 인구 이동

- 2005~2010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충남은 최근 5년 동안 전입 1,694,852명, 전출 1,630,612명으로 총 64,240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2000~2005년에 비해 인구 증가폭이 약 3.7배에 달함
-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55.4%가 충청남도 내에서 이동하였고, 수도권 및 대전광역 시로의 유출이 30.5%에 달하였으며, 2005~2010년에는 59.0%로 충 청남도와 대전광역시로의 인구유출이 증가추세이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충남 유입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역전현상을 보임
-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2005~2010년 사이에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연기군, 당진시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 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¹⁾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함

<표 VI-5> 충남 인구 이동패턴

(단위: 인)

 구분		2001~2005		2006~2010		
一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국	1,544,026	1,526,615	17,411	1,694,852	1,630,612	64,240
서울특별시	124,411	132,562	-8,151	131,753	130,613	1,140
부산광역시	18,608	12,635	5,973	18,751	13,549	5,202
대구광역시	12,317	8,690	3,627	13,383	9,588	3,795
인천광역시	47,118	43,690	3,428	52,156	41,690	10,466
광주광역시	8,538	6,527	2,011	9,715	7,914	1,801
대전광역시	122,670	135,737	-13,067	115,892	117,327	-1,435
울산광역시	7,753	5,214	2,539	7,739	5,707	2,032
경기도	189,413	198,039	-8,626	218,475	197,514	20,961
강원도	19,718	16,293	3,425	19,517	17,052	2,465
충청북도	47,306	44,156	3,150	42,971	43,528	-557
충청남도	845,657	845,657	0	961,632	961,632	0
전라북도	37,570	30,604	6,966	35,083	31,976	3,107
전라남도	17,923	12,309	5,614	18,252	13,737	4,515
경상북도	21,852	15,441	6,411	24,548	17,601	6,947
경상남도	19,791	16,086	3,705	21,312	17,904	3,408
제주특별자치도	3,381	2,975	406	3,673	3,280	393

자료 : 통계청, 2001~2010년 충청남도 전입 전출 인구

다. 인구지표 전망

- 인구지표 설정은 상한치와 하한치를 제시함으로써 미래변화와 불확실 성을 감안토록 하였음
 - 상한치는 기존 국가정책과 사업추진이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
 - 하한치는 현재의 인구증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
- 안정 성장 시나리오: 1,963천명(2005년) → 2,300천명(2020년)
 - 안정성장치 시나리오에 의한 계획인구는 자연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 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음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 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
 - 사회적증가분은 세종시 등 신도시 개발이나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를 적용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 업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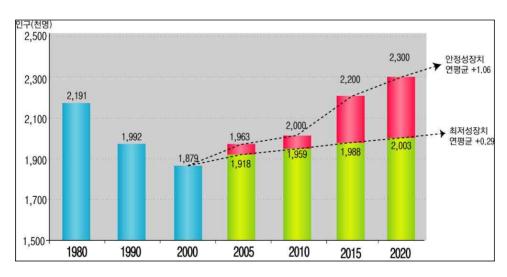
- 자연증가분은 2005년 약 1,963천명에서 2020년에 2,022천명으로 전 망되며, 사회적증가분은 세종시, 내포신도시, 태안기업도시, 국가산업단 지 등을 고려하여 약 292천명으로 추계할 수 있음²⁾
- 최저성장 시나리오: 1,918천명(2005년) → 2,003천명(2020년)
 - 최저 성장치는 과거 인구변화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래 인구를 추정한 값이며, 2007년 5월 통계청이 시도별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반영하여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였음
 - 단, 시도별 장래추계인구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의 효과를 일 반화하여 적용하지 않은 수치임

<표 Ⅵ-6> 충남인구 인구지표 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2003년				'05~'10	'10~'15	'15~'20	
	전국인	구*	48,294	49,220	49,803	49,956	0.16	0.23	0.02
충남	목표	최대치	1,963	2,000	2,200	2,300	1.06	1.15	0.89
δП	인구	최저치*	1,918	1,959	1,988	2,003	0.29	0.36	0.15

주: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2007.5)」에 제시된 수치이고, 사회적인구인 전출입 인구를 반영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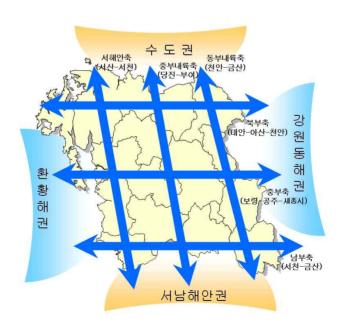
<그림 VI-9> 충남인구 인구지표 전망

²⁾ 사회적증가분은 2020년까지 세종시 180천명(계획인구 300천명, 외부유입률 60%), 내포신도시 35천명(계획인구 100천명, 외부유입률 35%), 태안기업도시 5,3천명(계획인구 15천명, 외부유입률 35%), 국가산업단지(2개소)유발 외부유입인구 72천명을 고려하여 약 292천명으로 추계할 수 있음

3. 지역 개발환경 변화

■ 충남 발전축 설정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및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전략을 근간으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자형 개발축 설정 수용
- 충남 외부권역의 발전 파급효과를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권역별 특성 과 자원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 하며,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적 역할 강 화 및 충청광역경제권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발전축을 설정
 - 대외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 동남아시아와 연계될 수 있는 교류축 구상
 -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및 서남부 해안권과의 연결축 구축으로 지역 간 연계·제 휴를 도모
 - 충청광역경제권의 통합적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동서축의 조기 구축을 도모 하며, 이를 위해 권역 내 시·도간 광역적 연계·협력을 촉진
- 충남 내부권역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점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발전축별 특화기능을 부여



<그림 Ⅵ-10> 충청남도의 발전축

■ 발전축별 개발방향

- 동서2축과 남북2축을 설정하여「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개 방형 녹색국토축' 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변 광역시·도와의 연계성 제고 및 도내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형의 2축 을 추가
- 내륙의 성장거점권과 연안의 항만·임해산업지대 및 중추행정거점(세종 시-내포신도시)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당진-대전고속도로에 의해 연결되는 남동~북서1축,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남서~북동1축의 ">"형 보조발전축을 설정
- 북부축은 국제교류 · 첨단신산업복합지대로, 중부축은 문화 · 관광 · 물류 · 산업연계지대로, 남부축은 친환경 · 바이오 · 복합생태산업 · 관광지대로, 서해안축은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대로,, 중부내륙축은 역사문화 · 첨단농축산업지대로, 동부내륙축은 중추행정 · R&D중심지대로 육성

<표 Ⅵ-8> 발전축별 연계지역과 개발방향

구 분	축별 연계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축	태안-천안 (태안-서산-당진- 아산-천안)	 내륙 및 임해형 첨단신산업 복합지대 해양관광·해양산업지대 국제교류의 게이트웨이 및 서해안 개발의 거점
중 부 축	세종시-보령 (세종시-공주 -청양-보령)	• 서해안과 중부내륙 연계 문화·관광·물류지대 • 해양과 내륙의 물류·산업·행정 연계
남 부 축	서천-대전 (서천-부여-논산- 금산·대전)	 친환경산업·바이오산업지대 복합적 생태연구·학습·산업 거점, 신녹색성장산업 지대, 역사·문화·농촌관광 복합지대
서해안축	서산-서천 (서산-홍성-보령-서천)	• 연안개발·관리 및 산업구조 고도화지역
중부내륙축	당진-부여 (당진-예산-청양-부여)	• 역사·문화·관광, 농산업 중심지대 • 첨단농축산업 연구생산 및 그린투어리즘지대
동부내륙축	천안-금산 (천안-세종시-대전-금산)	 중추행정, 국제과학비즈니스거점, 복합첨단산업, 내륙교통·물류지대 중부내륙의 행정·산업·R&D·물류·교통중심축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국내외적 교류 · 교역의 거점으로서 항만 · 철도망 · 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
 - 내륙지역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은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되, 산업단지 및 지역 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 하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덕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 메카 조성
 - 거점항만 및 물류기지 확충으로 국제적 교역 · 교류의 거점으로 특화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집적지 · 물류유통거점 등을 조성하여 무역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
 -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고, 통합적 연안환 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
 - 중서부지역에 인구 10만 규모의 내포신도시를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충남도내 지역 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R&D특 구를 긴밀히 연계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 · 지방 중 추행정 연계축을 구축
- 역사·문화관광, 생명·정보산업, 도농복합생활공간 형성
 - 금강의 수자원, 역사 · 문화자원, 경관 · 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 써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
 - 중부권의 물류·유통 거점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R&D특구와 연계한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수자원·관광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생태공원 조성

4. 산업간·산업내 수직·수평적 협력 강화

가. 전략산업 · 주력 기간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 전자·정보기기 클러스터 구축
 - 서해안을 중심으로 경기-전북과 연계하는 초광역메가클러스터 조성
 - 천안·아산 등의 서북부 권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 이 기술혁신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부품 · 소재 장비산업 지원체계 구축,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운영, 디스플레이산업 인증 · 평가지원 확대
 - 전자정보기기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산·학·연 ·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공장 신·증설 및 기업유치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
- 철강 및 친환경소재 산업 육성
 - 당진 친환경교역형 철강산업 기업도시 기반 구축
 - 연구개발기능 확대와 철강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철강산업 공동R&D센터 및 철강전문대학원 설립
 - 철강금속소재기반 구축 및 당진항과 충남내륙지역기반 연계도로 개설
 - 신소재 기반의 지능형자동차, 그린카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 의 연계 확대를 위한 Test Bed형 실증센터 설치 및 전문산업단지 조성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자동차 · 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R&D 기능 강화
 - 경기-전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완성차 및 부품산업 연계를 위한 자동 차-부품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국제경쟁력을 갖춘 감성형 및 3D 등의 첨단문화산업 특화 클러스터 육성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영상미디어센터,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의 사업화 시설 조성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의 1인 창조기업 육성
- 교육아카데미, 창작영화제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 농축산 BIO산업 클러스터 구축

- 연구개발 및 창업시설, 신제품 생산 등의 동물자원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동물의약품 R&D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산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지역특화 바이오기술 개발 사업을 통한 동물사료, 사료첨가제, 동물백 신 등의 연구개발지원
- BT기반의 IT융합 영상의료(측정)기기 및 첨단 의료기기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충청권 초광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산업을 대전의 R&D, 충남과 충북의 생산기능을 결합한 바이오 관련 산업 집적지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연구와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물산업 진흥센터 설치

■ 석유화학(정밀화학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정밀화학소재산업 기반 구축 및 연계산업 공급망(대산임해산업단지 관리센터 및 정밀화학 R&D센터 설립) 확충
- 대산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확충 위해 준산업단지 지정 또는 클러스터 화 추진
- 석유화학 대기업과 화학소재 중소기업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공동 R&BD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육성사업 추진
- 충남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을 위한 산업간 고도통합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나. 신성장동력 육성 및 네트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산업의 융복화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인증 시스템과 표준 화지원을 위한 융복합지원센터 설립
 - 기술융합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구축 및 산·학·연 연구인력 네트워크 및 인력DB 구축
 - IT산업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전장부품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 동차-IT융합산업 육성
 - 항공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 해안자원을 연계한 항공레저 R&D단지 및 항공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기반 구축
- 녹색산업 육성 및 산업의 녹색화 추진
 - 리튬이온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및 공급기반 구축
 - 그린카, 그린에너지 등의 권역별 녹색산업클러스터 육성
 - 녹색제품의 수출지원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인증기반 구축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기반 조성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의 저탄소화 시설현대화 지원
- 인접시도간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 충청권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구성 및 운영
 - 해외 연관 클러스터와의 교류 활성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지역산업별 공동 국제협력 지원
 - 인접시도(경기, 대전, 충북, 전북)간의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해외 클러 스터와 연계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표 Ⅵ-9> 충남 인접 시·도의 주요 전략(특화)산업

구 분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메카트로닉스
경기도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전자정보기기, 신재생에너지
전라북도	자동차 및 부품산업, 신재생에너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화 기능지구 조성 및 거점지구와 연계 강화
 -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와 산업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한 네크워크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육성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지역 내 파급과 연계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해양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 해양생물산업을 21세기 충남 첨단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해양 생물기반 기능성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 해양생물산업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해양생물진흥센터 건립
 - 국내 해양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 항공부품, 전자통신, 신소재, 복합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산업 산업단지 및 국방혁신단지 조성
 - 국방복합기술 등의 연구개발기능 확충 및 국방과 민간기술 융합화를 위한 국방기술사업화센터 설립
 - 국방과학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인접시도와의 공동추진체계 구축 및 공 동협력사업 추진

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기업지원기반 조성

- 연구개발 중심의 집적지구 조성
 - 연구개발 중심의 R&D집적지구 조성 및 신기술 및 지식 집약형 테크노 폴리스 조성
 - 연구. 컨벤션. 첨단R&D기능 중심의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 기술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작고 강한 강소기업 육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 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 대학의 연구 인력과 개발성과를 중소기업의 생산기능에 접목시켜 시제 품 개발 및 공정·품질개선 등의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 지역혁신센터(RIC)의 운영 및 효율화
 - 산학협력 영세기업 기술개발 지원
 - 창업보육업체의 도내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라.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

- 기업의 신규 유치 및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기 위한 산업단지 공급규모 확대
- 낙후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산업단지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국방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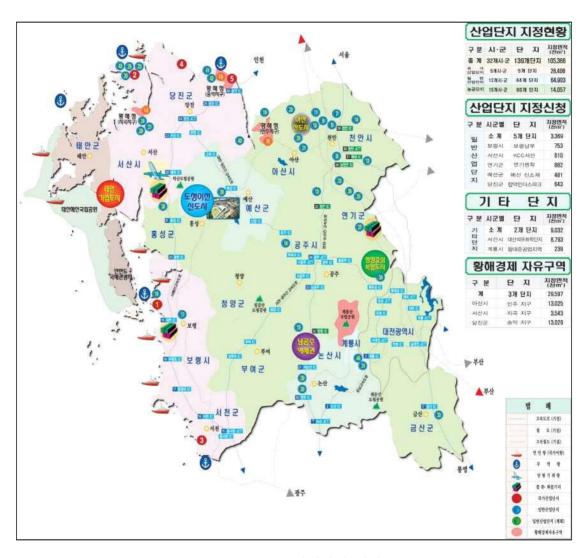
<표 VI-10> 산업단지 조성계획

(단위: 천m²)

기조성면적 (2010년 1/4분기 현재)	추가조성규모* (2011년~2020년)	
106,973 (134개단지)	49,943	

자료: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기본계획, 충청남도, 2006.

- 무분별한 개별입지 확대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산업집적을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 업종 간 연계 강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배치



<그림 VI-11> 산업단지 계획도

<표 VI-11> 제조업 분야의 세부추진시책과 주요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전략산업 및 기간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4대 전략산업 육성 (~2012년) □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 장비활용·특허·컨설팅 등 기술 및 정보지원체계 구축 □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 ㆍ 자동차 및 IT융합산업 진흥 육성 □ 기업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자동차IT융합사업 진흥원설립 ㆍ 첨단문화산업 육성 □ 공용장비 활용 및 기술정보 지원 □ 문화콘텐츠기반 1인 창조기업 육성 ㆍ 농축산바이오산업 육성 □ 현장기술인력 중심 전문 인력 양성 □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충남해양생물산업진흥센터 설립
	주요 기간산업 육성	 철강 및 신소재산업 육성 철강전문대학원 설립 철강 R&D지원센터 설치 석유화학 클러스터 조성 정밀화학 R&D센터 설립 정밀화학소재 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	· 충청권 5대 선도전략산업 육성(계획 중, 2013~) · 충청권 선도 산업(NEW-IT, 의약바이오산업) 육성 (2009~2012년)
신성장동력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충청남도 신성장동력 육성	 충청남도 10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플렉시블 전자소자산업 육성사업 그린수송산업 육성사업(2차 전지 포함) * 2017년까지 13,000억 원
	광역 협력	・충청권 경제포럼 구성 운영 ・대황해권 Display Mega Cluster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협력 사업(기능지구 조성)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지원기반조성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지역일자리 종합센터 설치지역혁신센터(RIC)지원 및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기업지원 기반조성	투자유치지원	 녹색기업 유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융합녹색 기술지대 조성-자유무역지대 지정 개발(평택 당진 내항지역)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관리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벨트 조성 및 지원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생산기반 확대 및 현대화	시설현대화	· 산업단지(농공)시설 현대화 지원(노후시설 개선) · 정유·석유화학간 고도통합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산업집적지 조성	 산업단지 및 특성화 단지 조성 (45개소)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아산제 2테크노벨리, 항공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항공레저 R&D단지 조성, 자동차 부품소재 단지 및 모듈화 단지 조성, 플렉시블 첨단산업단지 등

5. IT · 환경 · 에너지 등 첨단 기술분야의 발달

■ 고효율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1차 에너지 가운데 연평균 수요증가율이 도시가스 20.7%, 기타 프로 판 및 부탄가스 14.8%로 이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충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버스, 트럭 등 배출가스의 환경부하가 큰 교통수 단에 대해 압축천연가스(CNG) 공급시설을 확충
- 도서지역 등 전력공급이 불리한 지역의 자체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내연발전 설비추가 등 공급기반을 강화

■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수요관리

-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조성
-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
- 에너지 이용의 생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약기업(ESCO) 육성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의 최적화 추진

<표 VI-12> 에너지 분야의 세부시책과 주요사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사업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	· 공동주택(금산, 논산 등 6,166세대)
	· 도시형버스 압축천연가스 공급시설(천안, 아산)
	· 태양열 급탕(32개소)
	· 목질계 바이오 그린홈 보급(우드펠렛 보일러 5,000기)
시케세세네키 시요하네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건설(10개소)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 지열냉난방(유리온실 25개소, 아파트 200개 동)
	· 그린홈 보급(12,000가구)
	· 그린빌리지 조성(16개소)
	· 태양광발전(380kw)
	· 풍력발전(4지역, 16,450kw)
신재생에너지 개발	· 연료전지발전(RPS 연계사업 추진 4개소)
선세생에너의 개월	・축산바이오가스발전소 보급(10기)
	· 지열발전(RPS 연계사업 추진)
	· 소수력발전(금강사업 연계 4개소)
 신재생에너지 타운	•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타운 사업(도청이전신도시, 행복도시 등 2
	개소)
조성	• 신재생에너지 테마공원 조성 (서천, 중부발전 1개소)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조성(1식)

6.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 친환경 고품질의 농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순환 식품체계로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를 높임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 물에 대한 지역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 전개
-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수출 경영업체의 신규시장 진출 또는 수출상품 개발추진
- 충남 쌀의 고급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안정적인 쌀 및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다양한 농업 보험제도의 확대 추진
- 과수산업 유통구조 개선의 추진, 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저비용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우수 원예브랜드 및 시군별 특화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차별화·고급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생산·가공·유통·체험·문화가 융복합된 농어업 6차산업화 육성으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확충 및 지역경제 성장 도모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농식품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녹색식생활 교육 확산, 학교급식 과 공공급식 추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 친환경 농업 육성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8개소), 친환경 농업지구(200개소),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유기채소 전문단지(25개소) 등 확대 조성
- 친환경농업 신규 인력 발굴(4,000명) 및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육성(300개 단체) 및 운영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농업환경 부하 경감지원
- 농수산물 국제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충남쌀 고급화 및 브랜드 육성, 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사업(공동육묘 장설치, 볍씨발아기 공급, 최적 경영체 육성),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 과수·원예·특작 품목의 경쟁력 강화
 - 과실전문 APC 건립(5개소), 산지 공동마케팅 및 산지·소비지 유통계 열화 추진,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규모화를 통한 과수산업 유통 구조 개선
 -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 및 GAP 및 친환경 재배체계를 확립, 우량묘목 생산·공급, 무병묘목 공급지원 확충, 농기자재 지원
 - 과실브랜드 육성 및 수출확대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재배환경 생력화,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원예품질개선(10개소), 시설원예양액육묘시설,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등 지원, 화훼 수출 경영체(10개소) 육성(10개소)
 -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3개소),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10개 단지), 채소 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추진(가격예시제 및 직불제 도입), 지역특화 품목 브랜드화를 위한 생산·유통·가공지원(5개 품목)
 -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어업 6차 산업화
 - 식품산업 육성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창업·육성 지원(100개소)
 - 포탈, 충남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육성, 향토자원 발굴 및 육성
 - 농식품 문화 디자인 사업(50개소), 전통주 육성(30개소), 전통·발효식 품 육성(30개소), 농식품 가공산업(40개소) 육성

나,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 신규 임업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임업인 육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업경영기반 구축
- 지속적인 산림자원의 보호를 통한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임업의 융·복합화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시키고, 산촌지역의 경 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임업의 기반확충

- 소비자 욕구, 소비형태 등의 시장조사와 분석(36종), 새로운 생산·가 공기술의 보급 확대
-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전문임업인 실태 조사 및 육성(분야별 4~5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 지원강화, 유통 및 가공기 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 산림자원의 보호 강화

- 체계적·집중적 산림 유역관리,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
- 통합숲가꾸기사업, 바이오산물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임산바이오 매스, 목재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기계화 촉진
- 수목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수목원(6개소) 및 산 림박물관(2개소) 조성,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지원하는 생태숲 조성(1개소), 소나무숲 생물 다양성 증진

■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 희망산촌만들기(500개소), 산촌생태마을 조성(30개소), 도시숲(10개소) · 학교숲(10개소) 조성
- 권역별 특화산림휴양단지 조성(1개소),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2개소),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지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2개소)

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 축산물 위생안전시스템 선진화,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가공 시설 현대 화로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정립
-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과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기반 구축으로 지속가 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 축종별 생산기반 정예화 및 명품브랜드 개발 · 육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방역시스템 보완 및 방역 인력 확충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상시방역체 계 구축

▮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 축산물 위생안전시스템 선진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친환경사육시설(群飼 System) 도입

■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축사시설 현대화, 한우 인공 수정료 및 등록비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양돈농가 모돈 갱신(10천두/년) 및 장비 지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자동급수시설 지원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2개), 육우 광역브랜드 육성(1개)

▮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체계 구축

• 가축방역확대 및 방역시스템 보완, 가축방역 인력 확충

라. 수산자원의 보전 관리 및 어업경쟁력 강화

- 친환경 고품질 어업 등 다양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수산 물 특화 자원을 적극 육성
- R&D 강화, 인력육성, 역량강화 등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
- 수산자원 및 수산생태계의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의 조성
- 수산자원 및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어항·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복지환경을 개선

■ 어업기반시설 확충

- 지역특화 수산물 명품화 지원(보령 명품바지락 육성, 서산 참굴양식 지원, 서천 김 클러스터 구축, 태안 해삼특화단지 조성), 천일염 육성 지원(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1개소), 바닥재 개선, 포장재 지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수산물 처리저장사업(1개소), 수산물 위판장 시설지원(2개소),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2개소)
- 연안 바다목장 조성

■ 수산업 연구 기반 강화

- 수산연구소 현대화 및 해양수산 R&D 강화, 어촌인력양성, 수산업경영 인 및 전문 컨설팅 지원, 수산경영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개선
 - 연안어장에 인공어초 시설설치로 수산생물의 산란 · 서식장 조성
 - 유류피해지역 조업 · 마을어장 · 채묘어장 환경개선

■ 어항·어촌 활성화

• 어항개발(7개항) 및 보수보강 지원(11개항), 어촌종합개발(5개 권역) 및 어촌관광개발(10개 마을), 어선 등 재해보험 지원